

[인도 · 남아시아 비즈니스 정보]

스리랑카, 석유 및 가스 산업 시장동향

2003년과 2005년 스리랑카 정부는 노르웨이 기업 TGS-NOPEC社와 스리랑카 영해와 서부 해안의 만나르 분지(Mannar Basin)에서 석유 탐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지역 내 3만 평방 킬로미터 지역에 석유 자원을 발견하였다. 이곳의 석유 매장량은 약 1백만 배럴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만나르 / 코버리 분지 석유 탐사

스리랑카 석유 자원 개발 사무국(PRDS)은 만나르 분지(Mannar Basin)와 코버리 분지(Cauvery Basin)에서 해양 석유 탐사를 위한 구역(M2 구역으로 명명)을 지정했다. 2008년 7월 인도의 석유 탐사 기업인 Cairn India社가 만나르 분지의 첫 번째 탐사권을 얻어 탐사를 시작했다. 탐사는 성공적이었고 Cairn India社는 스리랑카 정부와 발견한 자원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내 Cairn India社는 스리랑카에서의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스리랑카 정부 측에서 제시한 원유 및 천연 가스 가격이 낮았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석유 자원 개발부는 미국의 HIS Energy社와 마케팅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스리랑카 정부가 탐사 구역과 관련한 마케팅 전략, 파트너 선정 기준, 입찰 서류 등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몇몇 주요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이 만나르 분지에 관심을 보였으며 스리랑카 정부는 추가적인 탐사를 시행 중이다.

석유 정제소 및 파이프 라인 개선 및 확장 필요

새로운 자원들이 속속 발견됨에 따라 스리랑카에서는 석유 정제소와 주요 항구와 정제소를 연결하는 파이프 라인 등의 인프라를 개선, 확장하는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푸가스칸다(Sapugaskanda) 정유 공장을 운영하는 스리랑카 국영 석유기업인 실론 석유공사(CPC, Ceylon Petroleum Corporation)는 기존 정유 공장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정유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CPC는 정제소 확대를 통해 일일 정제 용량을 현재 5만 배럴에서 10만 배럴로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스리랑카의 5.8킬로미터 송유관은 긴급 교체가 필요한 상태로 CPC는 새로운 송유관 건설에 대한 입찰을 평가 중에 있다.

스리랑카 석유 및 가스 산업 기회

스리랑카 정부는 우선 사푸가스칸다(Sapugaskanda) 정유 공장의 수리를 석유 및 가스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중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사푸가스칸다 정유 공장의 생산량은 스리랑카 석유 수요의 40%를 충족시키며, 스리랑카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정제 연료의 60%를 수입하고 있다. 현재 스리랑카 석유 자원부는 사푸가스칸다 정유 공장을 확장하기 위한 입찰에 대한 설명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또한 석유 자원부는 실론 석유공사가 사푸가스칸다 정유 공장의 소유권을 유지하며, 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탕감할 예정으로 향후 공개적이고 투명한 입찰 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 스리랑카 정부는 국내 시장과 수출 시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소유 정유공장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석유 자원부는 관련 제안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프로젝트에 대해 내각의 승인을 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본 프로젝트에 참가하고자 하는 후보 회사는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달 자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공지하였다.

〈스리랑카 만나르 분지 지도〉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출처

U.S. Department of Commerce, Sri Lanka-Oil and Gas, 2017. 11. 08

<https://www.export.gov/article?id=Sri-Lanka-Oil-and-Gas>